洪吟

홍 음

(二)

李 洪 志

無迷

誰是天之主
層層離法徒
自命主天穹
歸位期已近
看誰還糊塗

二零零一年三月十四日

득도명(得道明)

한 왕조 천자(天子)에 한 왕조 중생이라
왕조마다 인연 이어 법을 기다렸다네
당시 왕조 인연사 상관 말지니
원만하여 귀가하면 만사가 통하리라

2001년 2월 24일

得道明

一朝天子一朝眾
朝朝接緣把法等
別管當朝緣中事
圓滿回家萬事通

二零零一年二月二十四日

차 례

堅定 ····· 2
견정(堅定) ····· 3
無題 ····· 4
무제(無題) ····· 5
見真性 ····· 6
진성이 보이노라 ····· 7
心自明 ····· 8
심자명(心自明) ····· 9
報應 ····· 12
응보 ····· 13
法網 ····· 14
법망(法網) ····· 15
正大穹 ····· 16
대궁을 바로잡다 ····· 17
普照 ····· 18
널리 비추다 ····· 19
除惡 ····· 20
악을 제거하다 ····· 21
無 ····· 22
무(無) ····· 23
留意 ····· 24
유의(留意) ····· 25
行中 ····· 26
행중(行中) ····· 27

解大劫 ····· 28
대겁(大劫)을 풀다 ····· 29
得道明 ····· 30
득도명(得道明) ····· 31
無迷 ····· 32
무미(無迷) ····· 33
道中行 ····· 34
도중행(道中行) ····· 35
去執 ····· 36
고집을 버려라 ····· 37
無阻 ····· 38
가로막지 못하리 ····· 39
緣結蓮開 ····· 40
인연 맺어 연꽃으로 피네 ····· 41
漸齊 ····· 42
가지런히 드러나누나 ····· 43
真言 ····· 44
진언(真言) ····· 45
秋風涼 ····· 46
가을바람 서늘하구나 ····· 47
預 ····· 48
예견 ····· 49
大道行 ····· 52
대도행(大道行) ····· 53
劫 ····· 54
겁(劫) ····· 55
掃除 ····· 56
소제(掃除) ····· 57
必然 ····· 60
필연(必然) ····· 61

대겁(大劫)을 풀다

인간사 어지러움 그 얼마이든가
쌓이고 쌓인 은혜와 원한 수없이 거쳐왔구나
마음은 악하고 업은 커 희망이 없으나
대법은 연원(淵源)을 모조리 풀어 가누나

2001년 2월 22일

解大劫

多少人間亂事
歷經重重恩怨
心惡業大無望
大法盡解淵源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淘 ····· 62
일다(淘) ····· 63
大舞台 ····· 64
큰 무대 ····· 65
戲一台 ····· 66
연극 한 편 ····· 67
精進正悟 ····· 68
정진정오(精進正悟) ····· 69
法正乾坤 ····· 70
법정건곤(法正乾坤) ····· 71
大法好 ····· 72
대법은 좋다 ····· 73
鐘樓 ····· 76
종루(鐘樓) ····· 77
鼓樓 ····· 78
고루(鼓樓) ····· 79
佛法無邊 ····· 80
불법은 끝없어라 ····· 81
入無生之門 ····· 82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들다 ····· 83
如來 ····· 84
여래(如來) ····· 85
正念正行 ····· 88
정념정행(正念正行) ····· 89
神路難 ····· 90
신의 길은 어렵나니 ····· 91
正神 ····· 92
정신(正神) ····· 93
天又清 ····· 94
하늘이 다시 맑다 ····· 95

震懾 ····· 96
두려워 떨게 하다 ····· 97
快講 ····· 98
빨리 알려라 ····· 99
清醒 ····· 100
청성(清醒) ····· 101
誰迷 ····· 102
누가 미혹 되었는가 ····· 103
網在收 ····· 104
그물을 당기다 ····· 105
還吧 ····· 106
갚아라 ····· 107
神威 ····· 108
신위(神威) ····· 109
圍剿 ····· 110
포위 토벌 ····· 111
梅 元曲 ····· 112
매화 원곡 ····· 113
下塵 ····· 116
인간세상으로 내려오다 ····· 117
大法行 宋詞 ····· 120
대법행(大法行) 송사 ····· 121
一念中 ····· 124
일념중(一念中) ····· 125
唐風 ····· 126
당풍(唐風) ····· 127
看好 ····· 128
똑똑히 보아라 ····· 129
讀學員文章 ····· 130
수련생 문장을 읽다 ····· 131

행중(行中)

하늘 끝 어드메가 험하다더냐
둘러보니 협곡 속의 하늘이네
어디에서 신선을 찾을 수 있으랴
마주하고도 신선을 알아보지 못하네

2001년 2월 22일
미국 대협곡에서

行中

天涯何處險
一覽峽中天
神仙何處尋
對面不識仙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於美國大峽谷

亂世 宋詞 ····· 132
난세(亂世) 송사 ····· 133
正法看 宋詞 ····· 136
정법이 보고 있노라 송사 ····· 137
征 ····· 138
정벌 ····· 139
理智醒覺 ····· 140
이지 각성(理智醒覺) ····· 141
金剛志 ····· 142
금강지(金剛志) ····· 143
法正一切 ····· 144
법이 일체를 바로잡다 ····· 145
龍泉寺 ····· 148
용천사(龍泉寺) ····· 149
大法徒 宋詞 ····· 152
대법제자 송사 ····· 153
法輪常轉 ····· 156
法輪(파룬)은 항상 도나니 ····· 157
洪誓大願 ····· 158
큰 맹세 큰 소원 ····· 159
救大穹 ····· 160
대궁을 구하다 ····· 161
劫數 元曲 ····· 162
액운 원곡 ····· 163
危 ····· 164
위험 ····· 165
蓮 元曲 ····· 166
연(蓮) 원곡 ····· 167
斷 元曲 ····· 168
끊다 원곡 ····· 169

香蓮 ····· 170
향연(香蓮) ····· 171
法正人間時 ····· 172
법정인간 시 ····· 173
蠢 元曲 ····· 174
어리석음 원곡 ····· 175
別哀 ····· 176
슬퍼하지 말라 ····· 177
腰鼓隊 元曲 ····· 178
요고대(腰鼓隊) 원곡 ····· 179
難 ····· 180
어려움 ····· 181
師徒恩 ····· 182
사도은(師徒恩) ····· 183
神醒 ····· 184
정신을 차려라 ····· 185
天門已開 ····· 186
천문(天門)은 이미 열렸노라 ····· 187
怕啥 ····· 188
두려울 것 뭐냐 ····· 189
轉輪 ····· 190
전륜(轉輪) ····· 191
洪劫 ····· 192
큰 겁 ····· 193

유의(留意)

한편으로 여행하며 한편으로 풍경을 보나니
만악(萬惡) 모두 제거해야 많은 중생 살리네
애써 깊이 쌓인 원한 풀어내나니
즐거이 풍경 구경하기 쉽지 않구나

2001년 2월 22일

留意

一路征塵一路風
萬惡除盡萬眾生
勞心力解淵怨事
難得歡心看風景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洪 吟

홍 음

(二)

李 洪 志

堅定

覺悟者出世爲尊
精修者心篤圓滿
巨難之中要堅定
精進之意不可轉

一九九九年五月三日

二零零四年二月修改

무(無)

무도 없고 공도 없고 아무 것도 없나니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극을 벗어났도다
나아가면 만만물(萬萬物)을 이룰 터이고
물러서면 전무하나니 영원히 헤매리로다

2001년 2월 22일

無

無無無空無東西
無善無惡出了極
進則可成萬萬物
退去全無永是迷

二零零一年二月二十二日

견정(堅定)

깨달은 자 세속 벗어남을 높이 보나니
정진하는 자 마음 독실하여 원만할 수 있도다
큰 난 중에서 견정해야 하나니
정진의 뜻은 접을 수 없도다

1999년 5월 3일
2004년 2월 수정

無題

大法看人心
世人要清醒
神人鬼畜滅
位置自己定

一九九九年五月三日

二零零四年二月修改

악을 제거하다

차로 달려 십만리
검 휘둘러 악을 제거하기 급하네
하늘이 무너짐을 입장(立掌)으로 받치나니
법은 올발라 음험한 재난을 제거하누나

2001년 2월 19일

신사년 정월 27일

除惡

車行十萬里
揮劍消惡急
天傾立掌擎
法正去陰罹

二零零一年二月十九日

辛巳年正月二十七日

무제(無題)

대법은 사람의 마음을 보나니
세인은 깨어나야 하느니라
신(神) 인(人) 귀(鬼) 축(畜) 멸(滅)
위치는 스스로 정하는도다

1999년 5월 3일

2004년 2월 수정

見真性

堅修大法心不動
提高層次是根本
考驗面前見真性
功成圓滿佛道神

一九九九年五月八日

널리 비추다

신불이 세상을 거니노니
사악은 마음에 시름 생기네
난세의 어지러움 대법이 풀어내어
세상 쇠락을 끊어 막노라

2001년 2월 17일
신사년 정월 25일

普照

神佛世上走
邪惡心生愁
亂世大法解
截窒世下流

二零零一年二月十七日

辛巳年正月二十五日

진성이 보이노라

대법 확고히 수련하며 마음 움직이지 않나니
층차를 제고함이 근본이로다
고험(考驗) 앞에 진성이 보이나니
공성원만하면 불도신(佛道神)이로다

1999년 5월 8일

心自明

法度眾生師導航
一帆升起億帆揚
放下執著輕舟快
人心凡重難過洋
風雲突變天欲墜
排山搗海翻惡浪

대궁을 바로잡다

사악이 언제까지 날뛸 거냐
중생의 뜻 낱낱이 드러나는데
뉘라서 이 겁(劫) 벗어나 있을쏘냐
뭇 신의 어리석음 가소롭구나

2001년 2월 10일
신사년 정월 18일

正大穹

邪惡逞幾時
盡顯眾生志
此劫誰在外
笑看眾神癡

二零零一年二月十日

辛巳年正月十八日

심자명(心自明)

법은 중생을 제도하고 사부가 인도하나니
돛 하나 오르자 억만 돛이 나부끼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진 배 빠를 것이요
인심이 무거우면 바다 건너기 어렵도다
풍운이 돌변하여 하늘을 무너뜨릴 듯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뒤엎을 듯 거친 파도 이네

堅修大法緊隨師
執著太重迷方向
船翻帆斷迷命去
泥沙淘盡顯金光
生死非是說大話
能行不行見真相
待到它日圓滿時
真相大顯天下茫

一九九九年十月十二日

二零零零年五月二十二日發表

법망(法網)

명혜(明慧)는 인연 있는 자를 구도하고
신생(新生)은 머릿속의 악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민(人民)의 예리한 붓은 귀신을 떨게 하니
法輪大法(파룬따파)는 정견(正見)이로다

2001년 1월 17일
경진년 12월 23일

法綱

明慧救度有緣者
新生可去腦中惡
人民刀筆鬼生愁
法輪大法是正見

二零零一年一月十七日

庚辰年十二月二十三日

대법수련 견정히 하고 사부를 바짝 따라야 하나니
집착이 크면 방향을 잃으리라
배가 뒤집히고 돛은 찢겨 살려고 도망가나니
흙모래 깨끗이 씻기면 금빛 나타나리라
생사란 큰소리 쳐서 될 일이 아니니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진상을 보아야 하리라
훗날에 가서 원만할 때
진상이 크게 나타나 천하는 끝없이 펼쳐지리라

1999년 10월 12일
2000년 5월 22일 발표

報應

末世爛鬼多
披著人皮作
間隔一除盡
世上擺油鍋

二零零零年九月一日

庚辰年八月四日

응보

말세에는 썩은귀신 많아
인피 쓰고 설쳐대나
간격이 제거되기만 하면
세상에 기름 가마 놓이리라

2000년 9월 1일

경진년 8월 4일